

꽃다발 받는 외야 골든글러브 안현민-구자욱

등록 2025.12.09 19:04:08



[서울=뉴스시스] 최진석 기자 = 삼성 구자욱과 kt 위즈 안현민이 9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'2025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'에서 외야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며 꽃다발을 받고 있다. 2025.12.09. myjs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